**천 엔 지폐의 도안으로 채택된 후지산의 풍경 - 오카다 고요의 유명한 사진**

현행 천 엔 지폐와 1984년에 발행된 오천 엔 지폐에는 호수와 숲으로 덮힌 언덕 너머로 후지산이 보이는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진가 오카다 고요(1895~1972)가 1935년에 모토스코 호수를 촬영한 ‘호반의 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니가타현에서 태어난 오카다는 일본 산악 사진의 선구자입니다. 오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후지산을 ‘후지코’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후지산과 그 주변 지역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을 삼았습니다. 후지 5호 지역을 자주 방문해 사랑해 마지 않던 피사체의 새로운 얼굴을 찾아 숲이나 언덕을 산책하는 오카다의 모습은 지역에서도 유명해져서 오카다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오카다 고요 미술관은 오카다가 21세 때 처음으로 후지산에 마음을 빼앗겼던 오시노무라(마을)에서 2004년 개관했습니다. 오시노무라에 있는 8곳의 용수지를 뜻하는 오시노 핫카이 너머로 저멀리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사진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오카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카다의 발자취를 더듬다**

오카다가 촬영한 사진 ‘호반의 봄’으로 유명세를 얻은 풍경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장소는 모토스코 호수의 북서쪽에 있으며 ‘천 엔 지폐 속의 후지산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등산로로 들어가 1km, 약 30분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험준하고 가파른 절벽 몇 곳을 올라야 하지만 전망대에서 보이는 최고로 아름다운 후지산의 모습은 등산의 피로를 말끔히 잊게 합니다.